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

2018.8.9.

- 출장기관 : 일본 후쿠오카현 등 5개 기관
- 출장일시 : 2018년8월1일 ~ 8월4일(3박4일)
- 출 장 자 : 홍원표 박사(미래전략연구단),
김종화 박사(행정복지연구부)
- 주요내용 : ① 큐슈지역 지자체의 환황해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조사
② 충남연 큐슈지역 파트너 대상 물색

충남연구원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

1. 공무국외 여행 개요

○ 기간: 2018년 8월 1일(수) ~ 8월 4일(토), 3박4일

○ 여행자: 홍원표(미래전략연구단 미래연구팀장)

김종화(행정복지연구부 부장)

○ 여행국: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 방문기관: 후쿠오카현청, 나가사키현청, 큐슈경제연합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나가사키현립대학

○ 주요 일정:

시각		활동	내용	비고
일	시			
8.1. (수)	17:20-18:10	이동(김해→후쿠오카)	대한항공 KE797	
8.2. (목)	13:30-15:00	큐슈경제연합회 방문	큐슈경제연합회 활동 파악, 큐슈지역 현의 환황해권 협력 상황 파악	
	16:00-18:00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방문	현지 파트너 역할 가능성 모색	
8.3. (금)	10:00-12:00	나가사키현청 방문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 류협력 인식 조사	
	16:00-18:00	후쿠오카현청 방문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 류협력 인식 조사, 환황해포럼 초 청 건	
	19:00-20:30	나가사키현립대학 인터뷰	큐슈지역 파트너 선정 관련 자문의 견 청취	자문료 지급
8.4. (토)	11:20-12:20	이동(후쿠오카→김해)	대한항공 KE784	

2. 주요여행 활동 내역

- 큐슈지역 지자체의 환황해협력 관련 인식 조사
- 충남의 현지파트너 물색
- 올해 『환황해포럼』 초청 관련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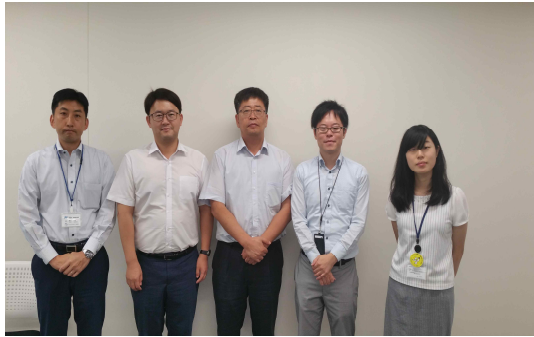
1) 큐슈지역 지자체의 환황해 교류협력 관련 인식 조사

○ 큐슈경제연합회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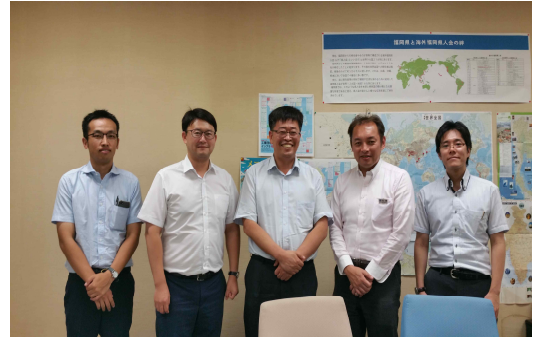
- 큐슈경제연합회는 큐슈지역경제단체 및 지자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한중일 환황해 기술경제회의 및 한일(큐슈)시도현지사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 큐슈경제연합회는 큐슈지역은 환황해권의 일원으로서 인식이 있으며,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각 현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반응

○ 나가사키현청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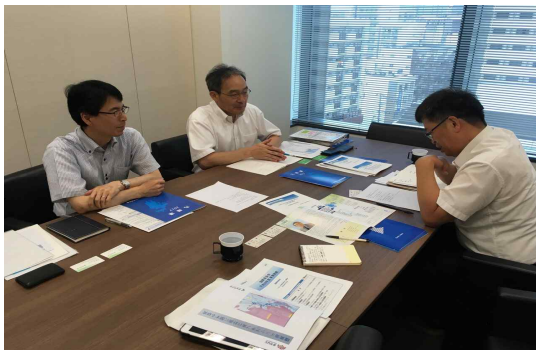
- 나가사키현은 현재 한일(큐슈)시도현지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상하이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교류관계가 있음
- 그러나 한중일을 아우르는 환황해권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한 바 없으며, 공통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인식이 없음
 - ※ 나가사키현은 국제교류협력의 중점이 ASEAN에 있으며, 중국, 한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이는 일본의 국제화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해양환경보호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바 없음
-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차원에서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음
- 국제 창업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후 현지에 정착하게 하는 노력이 있으나 이와 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음
- 관광 관련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거점인 후쿠오카공항으로부터 2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서 애로가 있음. 크루즈항의 경우 큐슈지역에서 하카타항(후쿠오카항) 다음으로 나가사키(사세보 등)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임
- 농산물의 해외수출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쪽으로 일어나고 있음.



[사진] 나가사키현청 회의 참석자



[사진] 후쿠오카현청 회의 참석자



[사진] 큐슈경제연합회 회의 참석자



[사진] 후쿠오카현청 회의 장면

○ 후쿠오카현청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 후쿠오카현은 큐슈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 방면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큐슈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로서 한중일을 아우르는 환황해권 교류협력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은 없으나, '황해'를 공통언어로 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심이 있음
- 나가사키현과 마찬가지로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ASEAN에 집중되어 있음. 후쿠오카현은 일본의 ASEAN 교류협력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해양환경보호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NGO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현 차원보다는 기타큐슈시 등 산하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 창업 관련하여 현 차원보다는 후쿠오카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음. 창업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후쿠오카시는 Growth Next 정책이나 『Hukuoka Gloabl Center』등을 설립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창취업을 장려하고 있음
- 하카타항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크루즈항 기항지이며 한국, 중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임. 후쿠오카 공항은 큐슈지역의 대표적 관문임. 그러나 후쿠오카공항도 아직 적자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심에 입지한 공항으로서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임

구분	큐슈경제연합회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환황해권 소속감	강함	약함	보통
한중일 교류협력 필요성	강함	약함	약함
국제교류협력 중점	ASEAN	ASEAN	ASEAN
한국과 협력 관심분야	관광, 농수산	관광(역사교류)	관광
중국과 협력 관심분야	미상	관광, 농수산	관광, 재생에너지

2) 큐슈지역 지자체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조사의 시사점

○ 첫째, 한중일 협력 관련 충남의 위상을 일본 큐슈지역과 중국의 북부(산둥성 이북)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 큐슈지역은 일본과 ASEAN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대부분 남방(홍콩, 상하이 등)에 집중
- 큐슈지역 국제교류협력은 대부분 관광, 농산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 지역은 ASEAN 이외에 중국의 남방, 한국 등임
- 충남의 농산물 수출도 큐슈지역과 유사하게 주로 싱가포르, 홍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임
- 충남은 향후 중국의 북부와 일본의 큐슈를 연결하는 거점이 된다면, 일본 큐슈지역과 중국의 북부에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는 향후 충남에 건설될 공항과 항만의 특화 전략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환황해 교류협력 파트너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등 큐슈지역의 주요 지자체가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 ※비록 큐슈경제연합회는 환황해권에 대한 유대감이 있으나 이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행사주관기관으로서의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ASEAN과의 연계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됨
- 큐슈지역과의 종합적인 교류협력보다는 분야 및 사안에 따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후쿠오카현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충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충남도의 일본지역 교류협력은 쿠마모토현(큐슈), 나라현, 시즈오카현인바, 쿠마모토를 제외하면 모두 혼슈지역의 지자체로서 환황해권과는 거리가 멀
- [농산물 교역]의 경우 후쿠오카공항보다는 기타큐슈 공항, 사세보 공항이 24시간 통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됨
- [관광 교역]의 경우 크루즈여행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충남의 보령신항은 하카타항을 우선 고려하되, 나가사키항과의 연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임
- [국제창업]의 경우 후쿠오카시가 이미 국제창업 관련 움직임이 있음을 고려, 충남의 천안아산지역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 [해양환경 보호]의 경우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임. 현재 일본, 한국, 중국 모두 해양쓰레기 관련한 NGO가 조직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충남은 이와 관련한 NGO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NGO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3) 충남연구원 현지 파트너 물색

○ **잠재적 파트너로서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등 3개 조직(기구)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광역공익재단법인

으로서 1946년 설립되어 7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는 국립대학에 설립된 유일한 한국연구센터로서 현재 활동은 미약하나, 큐슈대학이 설립준비중인 큐슈대학국제교육기구는 큐슈대학출신자의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 4월경 출범예정임
-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는 후쿠오카시가 세운 연구소로서 현재 한국의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대부분이 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초광역(sub-national) 수준의 기구로서 경제분야 특화 기관임**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지역적으로 큐슈뿐 아니라,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조사연구 기관임
- 내용적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외 분야에서는 강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현 수준인 충남의 파트너가 되기보다는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위상을 갖고 있음. 충청권 상생협의회 수준에서 대응가능하나, 상생협의회의 조직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는 충남과 인연이 깊으나 조직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연구센터는 이번 출장에서 방문하여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한 바, 현재 센터는 센터장 포함 4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센터운영위원에서 결정함.
- 현 체제에서는 큐슈대학의 강력한 지원을 받거나 큐슈대학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현재 주로 역사·인문과학 쪽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는 주로 센터장, 부센터장의 개인적 관심분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향후 관광, 문화교류방면에 관심 많음
- 향후 큐슈대학 차원에서 '아시아교육연구기구'를 설립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내년 4월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한국연구센터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구분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조직성격	공익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조직목표	경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일양국관계 근현사 및 당대 문제 연구	후쿠오카시 도시조성에 대한 기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협력과 공헌
설립년도	1946	1999	2004(전신인 후쿠오카도시과학 연구소는 1988년, 아시아태평양 센터는 1992년 설립)
출자금	미상	미상	3000만엔(후쿠오카시 출자)
회원	기업, 지자체, 대학 등 약600개 단체	대학 부설기관	시 출연 연구재단
종사인원	55명	15명(전임 3명)	27명
조직구성	총무부, 기획부, 조사연구부, 사업개발부,	센터장, 부센터장, 겸임교원, 협력교원, 특임교원 등	조사연구그룹(조사연구, 정보전략, 아시아교류팀), 총무그룹
주요 활동	·정기간행물 발행(큐슈경제조사월보, 도해큐슈경제, 데이터큐슈,, 큐조협뉴스레터 등) ·BIZCOU(경제도서관) 운영 ·정책제안(큐슈경제백서, 연구보고출판, 특별조사보고서) ·공동연구·파견(국제공동조사, 조사연구보고회 개최, 강사 파견)	·한일관계사 자료 연구 ·교육(세계한국연구컨소시엄, 한국근현사차세대청년연구자세미나, 한국국제교류재단펠로우십, 아시아태평양컬리지, 센터교원 수업) ·간행물발간(센터연보, 센터총서, 소장자료목록, 아카이브) 소장문고(森田芳夫文庫, 辛基秀文庫, 梁三永文庫)	조사연구(과제발견연구, 지역사회연구, 과제즉응연구, 아시아 도시정책연구 등) 정보수집·발신(기초사회 데이터, 도시정책연구 발간, 도시세미나 개최 등) 인재육성(시민연구원 수용, 젊은연구자 연구활동 장려, 회원연구원 수용) 네트워크 형성(아시아교류플랫폼 형성, 국제시찰·연수)
특기사항	큐슈지역 7개현 및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초광역(sub-national)기구 종합연구소라기보다는 경제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일본 국립대학 유일의 한국연구센터 1998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재일동포성금으로 개설, 박진도 전원장 제1회교환교수로 근무 현재 역사분야 연구에 치중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구성원(부산, 경남, 광주, 제주, 울산 연구원; 아시아성장연구소, 큐슈경제조사협회, (주)나가사키경제연구소, 사가대학산학지역연계기구 등 포함) 아시아교류네트워크협정체결기관(부산, 경남, 대전, 호치민, 아시아해비타트, 중국사회과학원노년과학연구소, 홍콩강사회과학원 등)
홈페이지	http://www.kerc.or.jp/	http://rcks.kyushu-u.ac.jp/	http://urc.or.jp/

4) 파트너 물색 관련 시사점 및 조치 사항

○ 일본 쪽 현지 파트너 물색 활동을 본격화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함

- 출장 결과 현지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있음을 확인함
- 이번 출장을 통해 확보한 연락창구를 통해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등 후보 조직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 필요
- 용역의 결과물인 선도사업 그리고 올해 환황해포럼 등 손에 잡히는 교류협력 계기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음

○ 2차 출장에서 큐슈경제조사협회와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파트너로서 가능성 확인 필요

- 일본 지역 2차 출장이 11월 중 예정되어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와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파트너로서 잠재력과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장 전 두 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첨부: 면담인 연락처 정보

기관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팩스/메일)
후쿠오카현청	石橋雅貴 (Masaki Ishibashi)	국제국 지역과 동아시계	계장	(092)643-3202/(092)643-3224/ ishibashi-m6079@pref.fukuoka.lg.jp
	中川洸平 (Kohei Nakagawa)	국제국 지역과 동아시아계	주사	(092)643-3202/(092)643-3224/ nakagawa-k1828@pref.fukuoka.lg.jp
	野瀬有与 (Nose Arisue)	환경부 폐기물대책과	주사	(092)643-3363/(092)643-3265/ nose-a7218@pref.fukuoka.lg.jp
	朴惠梨 (박혜리)	국제국 지역과	국제교류원	(092)643-3202/(092)643-3224/ paku-hz411@pref.fukuoka.lg.jp
나가사키현청	浦田正徳 (Urata Masanori)	환경부 폐기물대책과 순환형사회추진반	계장	(095)895-2373/(095)824-4781/ urata-masanori@pref.nagasaki.lg.jp
	荒木忠厚 (Araki Tadaatsu)	문화관광국제부 국제과 국제교류반	주임주사	(095)895-2081/(095)827-2487/ tad.araki@pref.nagasaki.lg.jp
	渡辺直子 (Naoko Watanabe)	문화관광국제부 국제과 국제기획반	주사	(095)895-2087/(095)827-2487/ naoko-watanabe@pref.nagasaki.lg.jp
큐슈경제연합회	安藤博昭 (Ando Hiroaki)	국제부	부장	(092)761-4261/(092)724-2102/ ando@kyukeiren.or.jp
	松尾浩文 (Matsuo Hirobumi)	국제부	부부장	(092)761-4261/(092)724-2102/ hi_matsuo@kyukeiren.or.jp
기타	永島 廣紀 (Nagashima Hiroki)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부센터장	(092)802-2032// nagashima.hiroki@m.kyushu-u.ac.jp
	田村善弘 (Tamura Yoshihiro)	나가사키현립대학 농학부	준교수	(0956)47-6832/(0956)47-6941/ ys-tamura@sun.ac.jp